

빠른 정답이 없습니다! 각 지문별 해설에 답을 달아줬으니 그걸 참고해주세요. 지문마다 해설 페이지를 분리해뒀서 다음 문제 정답을 보게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초반부 psat 문제들은 2문제에 한 페이지씩 해설이 있습니다. psat은 2문제씩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7주차

1. 다음 글의 문맥상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의 편재성(遍在性)이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죽음의 편재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보통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회피대상으로 생각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 아무도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아마도 그 세계의 사람들은 매일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랄 것이고 최소한 그 시간 동안에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는 장소가 있는 세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아마도 그 장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일 것이다. 그 장소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만 생각해 보아도 죽음의 편재성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편재성을 회피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의 편재성과 관련된 이러한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즐기는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혹시 그 활동들이 죽음의 공포를 높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스카이다이버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비행기에서 뛰어 내린다. 그들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조그마한 낙하산 가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 그렇다면, 앞서 상상해 본 세계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죽음의 편재성이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죽음의 편재성이 회피대상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 ① 스카이다이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 ②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회피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 ③ 죽음의 편재성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 ④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나 시간이 존재한다는 상상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 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동경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다음 글의 갑~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그 이해관계 사이의 충돌은 심각해졌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는 바로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방식의 정당성은 그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처벌은 사회 전체의 이득을 생각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범죄자를 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을: 처벌 제도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공리를 위해 범죄자들을 이용하곤 한다. 이는 범죄자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타고난 존엄성은 그런 대우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처벌 여부와 처벌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악행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방식은 그 악행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그 악행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교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처벌의 종류에 따라 교화 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벌금형이나 단기 징역형의 경우 충분한 교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 징역형의 경우 그 효과는 불분명하고 복잡하다. 특히, 범죄사회학의 연구 결과는 장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 보다 더 고도화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① 처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갑과 을의 의견은 양립 가능하다.
- ② 갑과 달리 을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부정한다.
- ③ 을과 달리 갑은 사람에게서는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 ④ 병은 처벌이 갑이 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⑤ 병은 처벌이 을이 말하는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핸드오버’란 이동단말기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 기지국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통화 신호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 기지국, 이동전화교환국 사이의 유무선 연결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이동단말기가 기지국에 가까워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데 반해, 이동단말기와 기지국이 멀어지면 그 둘 사이의 신호는 점점 약해진다. 이 신호의 세기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핸드오버가 명령되어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이동전화교환국과 기지국 간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핸드오버가 실패하게 된다.

핸드오버는 이동단말기와 기지국 간 통화 채널 형성 순서에 따라 ‘형성 전 단절 방식’과 ‘단절 전 형성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FDMA와 TDMA에서는 형성 전 단절 방식을, CDMA에서는 단절 전 형성 방식을 사용한다. 형성 전 단절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새로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형성되기 전에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단절 전 형성 방식은 이동단말기와 기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단절되기 전에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런 핸드오버 방식의 차이는 각 기지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만약 각 기지국이 다른 주파수를 사용 하고 있다면, 이동단말기는 기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미리 단절한 뒤 새로운 기지국에 맞는 주파수를 할당 받은 후 통화 채널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각 기지국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주파수 조정이 필요 없으며 새로운 통화 채널을 형성하고 나서 기존 통화 채널을 단절할 수 있다.

- ① 단절 전 형성 방식의 각 기지국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 ② 형성 전 단절 방식은 단절 전 형성 방식보다 더 빨리 핸드오버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이동단말기와 기존 기지국 간의 통화 채널이 단절되면 핸드오버가 성공한다.
- ④ CDMA에서는 하나의 이동단말기가 두 기지국과 동시에 통화 채널을 형성할 수 있지만 FDMA에서는 그렇지 않다.
- ⑤ 이동단말기 A와 기지국 간 신호 세기가 이동단말기 B와 기지국 간 신호 세기보다 더 작다면 이동단말기 A에서는 핸드오버가 명령되지만 이동단말기 B에서는 핸드오버가 명령되지 않는다.

4.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희생제의란 신 혹은 초자연적 존재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를 의미한다. 이 제의에서는 제물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데, 이때 제물은 제사를 올리는 인간들과 제사를 받는 대상 사이의 유대 관계를 맺게 해주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희생제의의 제물, 즉 희생제물의 대명사로 우리는 ‘희생양’을 떠올린다. 이는 희생제물이 대개 동물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하지만, 희생제물에는 인간도 포함된다. 인간 집단은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이를 극복하고 사회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처녀나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다. 이러한 사실은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설화에서 인간들은 신이나 괴수에게 처녀나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희생제의는 원시사회의 산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에 희생제의의 기원이나 형식을 밝히기 위한 종교현상학적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리고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희생제의에 나타난 인간과 문화의 본질에 대한 탐색이 있어 왔다. 인류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 희생양 등을 통해 인간 사회의 특징, 사회 갈등과 그 해소 등의 문제를 ‘희생제의’와 ‘희생양’으로 설명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들 간의 갈등은 공동체 내에서 무차별적이면서도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극도의 사회적 긴장 관계를 유발한다. 이때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갈등을 희생양에게 전이시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되찾고자 하였다는 것이 지라르 논의의 핵심이다.

희생제의에서 희생제물로서 처녀나 어린아이가 선택되는 경우가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처녀와 어린아이에게는 인간 사회의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이 깃들지 않았다는 관념이 오래 전부터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라르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희생제물로 선택된 이유를, 사회를 주도하는 주체인 성인 남성들이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자신들과 대척점에 있는 타자인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 ① 종교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사회의 특성과 사회 갈등 형성 및 해소를 희생제의와 희생양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 ② 지라르에 따르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갈등을 희생양에게 전이시킴으로써 사회 안정을 이루고자 하였다.
- ③ 희생제물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고자 한 의례 행위는 동양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 ④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제물인 처녀나 어린아이들은 성인 남성들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이다.
- ⑤ 인신공희 설화에서 희생제물인 어린아이들은 인간들과 신 혹은 괴수 간에 소통을 매개한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LEET (30~32)

19세기 후반에 발견된 자기(磁氣) 열량 효과는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자기 냉각 기술에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로부터 자기 냉각 기술은 오늘날 극저온을 만드는 고급 기술로 발전하였다. ㉠ 일반 냉장고는 가스 냉매가 압축되어 부피가 감소할 때 열을 방출하고 팽창되어 부피가 증가할 때 열을 흡수하는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이용하여 냉장고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시킨다. 그러나 가스 냉매는 일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되어 냉매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자기 냉각 기술은 일반 냉장고를 대신할 수 있는 냉장고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기 냉각 기술에 사용되는 자기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따라 냉장고가 작동되는 온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냉각 기술에 사용하기 적합한 자기 물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실온에서 작동 가능한 실온 자기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자기 물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 물질은 자화(磁化)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물질의 자화는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의 세기 및 자기 물질에 들어 있는 단위 부피당 자기 쌍극자의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자기 쌍극자는 자기 물질 속에 존재하는 초소형 자석을 의미한다. 자기 물질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로 구분된다. 강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었을 때에도 자기적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이며, 상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물질이다. 강자성체는 온도를 올리면 일정 온도에서 상자성체로 상전이를 하는데, 이때 자기 물질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자기 열량 효과는 자기 물질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이 열을 발산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 자기 냉장고는 이 효과를 이용한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통해 냉장고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 순환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두 과정과 자기장이 일정한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열 출입이 없는 열역학적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자기 냉장고에서 열역학적 순환 과정은 다음의 I, II, III, IV 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과정 I**에서는, 자기 쌍극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던, 온도가 T인 작용물질에 외부와의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작용물질의 쌍극자들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작용물질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때 자기장이 강할수록 작용물질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과정 II**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허용하면 이 작용물질은 열을 방출하고 차가워진다. **과정 III**에서는, 다시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하면 쌍극자의 배열이 무질서해지면서 작용물질의 온도가 하강한다. **과정 IV**에서는,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허용하면 이 작용물질은 열을 흡수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초기 온도 T로 복귀하면서 1회의 순환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작용물질이 열을 흡수할 때는 작용물질을 냉장고 내부와 접촉시키고 열을 방출할 때에는 냉장고 외부와 접촉시킨다. 이를 반복하면 작용물질은 열량을 방출하며 냉장고의 내부에서 외부로 열을 퍼내는 열펌프의 역할을 하게 된다.

효율이 좋은 자기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온도에서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큰 자기 물질을 작용물질로 사용해야 한다. 자기 냉장고에서 1회

의 순환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열량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과 후의 엔트로피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엔트로피는 물질의 자기 상태가 변하는 임계온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작용물질이 상전이하는 임계온도가 냉장고의 작동 온도 근처에 있을 때 그것의 자기 냉각 효과가 크다. 최근에는 임계온도가 실온에 가까운 물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한 실온 자기 냉장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작용물질의 부피 변화는 ㉡에서 작용물질의 온도 변화와 같은 작용을 한다.
- ② ㉠에서 압력의 변화는 ㉡에서 자기장의 변화에 대응한다.
- ③ ㉠에서 냉매가 하는 역할을 ㉡에서는 작용물질이 한다.
- ④ ㉠과 ㉡은 모두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이용한다.
- ⑤ ㉠과 ㉡에는 모두 열펌프의 기능이 있다.

6. ‘과정 I ~Ⅳ’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정 I에서 작용물질의 자화는 증가한다.
- ② 과정 II에서는 작용물질의 온도가 내려간다.
- ③ 과정 III에서는 작용물질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 ④ 과정 IV에서는 작용물질을 냉장고 내부와 접촉시킨다.
- ⑤ 과정 I ~Ⅳ의 1회 순환에서 자기장의 변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열량은 크다.

7. 위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A~E 중 실온 자기 냉장고에 사용될 작용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보 기> —

자기 물질 A~E 각각의 임계온도에서 자기 물질에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감소한 엔트로피에 대한 자료이다.

자기 물질	임계온도(℃)	걸어 준 자기장(T)	엔트로피 감소량(J/kgK)
A	-5	5	2.75
B	10	1	1.52
C	18	1	2.61
D	21	5	2.60
E	42	5	1.80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명제로 표현되는 ㉠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은 완전 자본 시장 가정, 곧 자본 시장에 불완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마찰 요인이 전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 자본 구조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이 없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모든 기업이 완전히 동일한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 내부 여유 자금이나 주식 같은 자기 자본을 활용하든지 부채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든지 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론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대 자본 구조 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제시된 이후, 완전 자본 시장 가정의 비현실성에 주안점을 두어 세금, 기업의 파산에 따른 처리 비용(파산 비용), 경영자와 투자자, 채권자 같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정보량의 차이(정보 비대칭) 등을 감안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들 중에는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 있다.

상충 이론이란 부채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편익으로는 법인세 감세 효과만을, 비용으로는 파산 비용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이론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법인세 감세 효과란 부채에 대한 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써 얻게 되는 세금 이득을 가리킨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상충 이론은 부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감세 효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반면, 기대 파산 비용도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본다. 이 상반된 효과를 계산하여 기업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부채 비율 곧 최적 부채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작은 순서에 따라 자본 조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가 필요할 경우 내부 여유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며, 그 자금이 투자액에 미달될 경우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에도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주식의 발행보다 부채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들의 부채 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론적 예측을 제공한다. 기업 규모와 관련하여 상충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기업은 소규모 기업에 비해 사업 다각화의 정도가 높아 파산할 위험이 낮으므로 기대 파산 비용도 낮아서 부채 수용 능력이 높는데다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부채를 차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업 규모가 클 경우 기업 회계가 투명해지는 등 투자자들에게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금융 중개 기관을 이용하여 자본을 조달하기보다는 주식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하여, 상충 이론은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는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성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모딜리아

니-밀러 이론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밀러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본 구조의 설명에 있어 파산 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감세 효과가 기업의 자본 구조 결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본 구조 결정에 세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현실에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소득세는 채권자의 자산 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밀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수요 행태와 기업들의 공급 행태를 정형화하여 경제 전체의 최적 자본 구조 결정 이론을 제시하였다. ㉡ 밀러의 이론에 의하면, 경제 전체의 자본 구조가 최적일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이자 소득세율이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 자본의 사용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 결국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경제 주체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만으로는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논할 수 없다.
- ② 자본 구조 이론은 기업의 가치가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 ③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내부 여유 자금, 주식, 부채의 순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 ④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 규모가 부채 비율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상반된 해석을 한다.
- ⑤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은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가진 결론의 비현실성은 비판했지만 이론적 전제에는 동의했다.

9. ㉠과 ㉡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 파산 비용을 반영하였다.
- ② 개별 기업을 분석 단위로 삼은 ㉠과 같은 입장에서 ㉡은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분석하였다.
- ③ 기업의 가치 산정에 법인세만을 고려한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 법인세 외에 소득세도 고려하였다.
- ④ 현실 설명력이 제한적이었던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은 기업의 가치 산정에 타인 자본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 ⑤ 자본 시장의 마찰 요인을 고려한 ㉡은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가 무관하다는 ㉠의 명제를 재확인하였다.

10. 윗글에 따라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것은?

— <보 기> —

기업 평가 전문가 A씨는 상충 이론에 따라 B 기업의 재무 구조를 평가해 주려고 한다. B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높으며 기업 규모가 작으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최근에 B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생산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 ① A씨는 B 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 ② A씨는 B 기업의 이자 비용에 따른 법인세 감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 ③ A씨는 B 기업의 높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 ④ A씨는 B 기업이 기대 파산 비용은 낮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 ⑤ A씨는 B 기업의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자금은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할 것이다.

‘멜로드라마’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통속적 이야기를 화려한 볼거리와 음악을 통해 보여 주는 대중 연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멜로드라마에서는 대개 사악한 봉건 귀족에게 뺨박받는 선하되 약한 부르주아의 이야기가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채 다만 비약이나 우연 같은 의외성에 기대어 부르주아의 덕행과 순결함이 어떻게든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19세기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멜로드라마의 인물 구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봉건 귀족의 자리는 악하되 강한 인물이 대신하고 그에 의해 고통 받는 선량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멜로드라마에서는 가족의 위기, 불가능한 사랑, 방해받는 모성, 불가피한 이별 등으로 주인공이 고통을 겪다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다루어졌고, 선악 대립보다는 파토스(pathos)의 조성이 부각되었다. 곧 약자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과장되게 보여 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약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파토스의 과잉은 그 나름의 의의를 지녔다고 할 만하다.

20세기에 들어서 멜로드라마는 영화로 중심을 옮겨 갔다. 영화는 클로즈업을 통해 관객들이 인물에 감정 이입을 하게 하기 쉬웠고, 통속성*과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기에도 적절했으며, 음악을 통해 과잉된 정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멜로드라마 영화는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로부터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따른 억압적 상황에서 고통 받는 약자, 특히 여성들로부터 파토스를 이끌어 냈다. 이들은 가부장제나 계층적인 차이로 고통 받으면서도 허락되지 않은 삶의 지평을 갈망하는 ‘어찌할 수 없음’의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다. 일례로 비더의 ㉠ <스텔라 달라스>(1937)에는 상류 계급의 문화 장벽을 넘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져야 했던 하층민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딸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가운데 마음 깊이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결국 딸을 상류층의 전남편에게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희생적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딸의 결혼식을 창밖에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고통 어린 만족을 선택한 모성에 공감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1950년대에 할리우드는 ‘가족 멜로드라마’라는 또 다른 멜로드라마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 멜로드라마는 통속적 서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의 축소와도 같은 미국 중산층 핵가족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이 자본이나 가부장제 같은 사회 권력이 작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크의 ㉡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1955)은 유복한 과부와 연하의 정원사의 사랑과 시련, 그리고 재회의 과정을 보여 주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결합을 반대하는 자식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애তত한 유대의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관리하는 제도가 된다. 따라서 자식들의 반대로 사랑을 포기했던 그녀가 거듭된 우연 끝에 병상의 정원사와 재회하게 되는 결말은 의미심장하다.

가족 멜로드라마로서 이 영화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어온 멜로드라마의 주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멜로드

라마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에 눈감은 채 주인공의 성공에 안도하는 기존의 ‘행복한 결말’과는 구별되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크는 여전히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결말에 관객들이 주목하게 하여,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만들어진 현실’이며 행복한 결말은 인위적인 허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했다. 고도로 표현적인 미장센(장면화)을 통해 여주인공이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중산층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으로 인한 억압과 소외의 상황임을 드러냈던 것이다.

멜로드라마는 ‘부적절한 리얼리즘’이니 ‘여성용 최루물’이니 하는 등의 비하하는 말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서크의 영화에서처럼 멜로드라마는 사회적 약자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전달하는 서사이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아이러니한 반응으로도 읽힐 수 있다. ㉢ 현실에 종속되면서도 그 현실을 넘어서려는 절박한 요구는 영화라는 재현 체계 속에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멜로드라마를 생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통속성 : 세상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의 성질.

11. ‘멜로드라마’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을 낳은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내용은 없었다.
- ② 통속성이 점차 사라졌고 정서 표출보다는 현실 묘사에 치중하게 되었다.
- ③ 영화에 나타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전환되어 표현된 것이다.
- ④ 작위적인 서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 ⑤ 인물들의 선악 대립이 차츰 약해지고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의 파토스가 형상화되었다.

12.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 음악을 사용하여 인물의 고통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 ② ㉠은 ㉡에 비해 관객들이 여성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더 강했을 것이다.
- ③ ㉠에 비해 ㉡은 결말에서 관객들에게 더 능동적인 감상을 이끌어내려 했을 것이다.
- ④ ㉠과 ㉡ 모두 현실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약자를 그렸을 것이다.
- ⑤ ㉠과 ㉡ 모두 위기에 빠진 중산층 가족의 가치 회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담았을 것이다.

13. 한국의 대표적인 멜로드라마에 대해 ㉠에 주목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한몽>에서 돈 많은 악인 김중배로 인해 심순애가 변심하고 가난한 애인 이수일이 정신적인 파탄에 이르는 모습은 돈과 사랑을 대립적으로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 ② <검사와 여선생>에서 살인범의 누명을 쓴 여선생 앞에 검사가 된 제자가 나타나 사건을 해결하지만, 작품의 초점은 세상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한 약자의 사정을 보여 주는 데 있다.
- ③ <자유부인>에서 사회 활동을 갈망했던 가정주부 오선영이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춤바람이 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실상 이 춤바람은 권위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다.
- ④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친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지만 떠나야 하는 아이가 처한 상황은 인간 운명의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⑤ <별들의 고향>에서 도시에 진입했다가 이기적인 남성들에 의해 버림받고 점점 타락해 가는 경아라는 여성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를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1. ②

- 가벼운 밑줄 문제입니다. 죽음의 편재성이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피 대상은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밑줄 문제는 근처를 보자! 이 하나의 원칙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④

- 이 세 사람의 주장 간의 공통점/차이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정리해보면 갑은 '처벌은 교육 및 교화의 목적으로 행해야한다.', 을은 '그 악행에 의해서만 처벌을 행해야한다.', 병은 '교화 효과 같은 건 없다!' 정도네요. 병의 주장 자체가 갑을 까는 내용이기에 답은 바로 4번입니다. 2, 3, 5번 선지의 경우에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기 힘들어 답이 되지 못하느, 수능 스타일은 아닌 선지입니다. 1번 선지는 스스로 지워보세요.

3. ④

- 역시 지문 내용이 어려운 듯 하지만, 핸드 오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성 전 단절 방식'과 '단절 전 형성 방식'의 공통점/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 하면서 지문을 읽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CDMA는 단절 전 형성 방식이기에, 단절 직전 두 기지국에 모두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도 '지문에 없어서 틀린 선지'가 존재하니 지문 내용으로 안 지워진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4. ①

- 이 지문은 지문의 흐름을 타며 '희생제의'라는 것에 대한 연구라는 화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1번 선지는 '종교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희생제의의 기원이나 형식'을 밝히려 했지, 인간 사회의 특성 및 갈등 형성, 해소 등을 밝힌 적은 없기에 답이 됩니다. 후자는 인류학적 연구에서 한 것이죠. 답을 고르는 것 자체보다도 이런 지문을 아무렇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후반에 발견된 자기(磁氣) 열량 효과는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자기 냉각 기술에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로부터 자기 냉각 기술은 오늘날 극저온을 만드는 고급 기술로 발전하였다. 일반 냉장고는 가스 냉매가 압축되어 부피가 감소할 때 열을 방출하고 팽창되어 부피가 증가할 때 열을 흡수하는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이용하여 냉장고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시킨다. 그러나 가스 냉매는 일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응고되어 냉매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자기 냉각 기술은 일반 냉장고를 대신할 수 있는 냉장고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기 냉각 기술에 사용되는 자기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따라 냉장고가 작동되는 온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냉각 기술에 사용하기 적합한 자기 물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실온에서 작동 가능한 실온 자기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자기 물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세기 후반! 일단 시간 나왔으니 시간순 서술의 가능성을 안은 채로 읽어 봅시다. 이때 알려진 ‘자기 열량 효과를 통해 자기 냉각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일반 냉장고’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 냉장고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건 ‘자기 냉각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냉장고가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젠 뭐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죠?

아무튼 읽어 보니, 일반 냉장고는 무슨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쓰이는 가스 냉매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실온 자기 냉장고’를 만들기 위한 자기 물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자기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요. 기대하며 읽어 봅시다.

자기 물질은 자화(磁化)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물질의 자화는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의 세기 및 자기 물질에 들어 있는 단위 부피당 자기 쌍극자의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자기 쌍극자는 자기 물질 속에 존재하는 초소형 자석을 의미한다. 자기 물질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로 구분된다. 강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었을 때에도 자기적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이며, 상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리는 물질이다. 강자성체는 온도를 올리면 일정 온도에서 상자성체로 상전이를 하는데, 이때 자기 물질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 자기장 세기 ↑, 자기 쌍극자 수 ↑ → 자화 ↑
→ 온도 ↑ → 강자성체 상전이 → 자기 물질 엔트로피 ↑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자기 물질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개념의 정의, 자화의 정의, 강자성체/상자성체의 정의, 그리고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를 가볍게 체크하면 끝나겠네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정보들이 아니라, 이 정보들을 토대로 만든 ‘자기 냉장고’의 작동 방식입니다. 기대하면서 가 봅시다.

자기 열량 효과는 자기 물질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 물질이 열을 발산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자기 냉장고는 이 효과를 이용한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통해 냉장고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 순환 과정은 열 출입이 없는

두 과정과 자기장이 일정한 두 과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열 출입이 없는 열역학적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자기 냉장고에서 열역학적 순환 과정은 다음의 I, II, III, IV 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①과정 I에서는, 자기 쌍극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던, 온도가 T인 작용물질에 외부의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작용물질의 쌍극자들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작용물질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때 자기장이 강할수록 작용물질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②과정 II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허용하면 이 작용물질은 열을 방출하고 차가워진다. ③과정 III에서는, 다시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부의 자기장을 제거하면 쌍극자의 배열이 무질서해지면서 작용물질의 온도가 하강한다. ④과정 IV에서는, 작용물질과 외부와의 열 출입을 허용하면 이 작용물질은 열을 흡수하고 온도가 상승하여 초기 온도 T로 복귀하면서 1회의 순환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작용물질이 열을 흡수할 때는 작용물질을 냉장고 내부와 접촉시키고 열을 방출할 때에는 냉장고 외부와 접촉시킨다.> 이를 반복하면 작용물질은 열량을 방출하며 냉장고의 내부에서 외부로 열을 퍼내는 열펌프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자기장 ↑ → 작용물질 열 ↑

드디어 우리가 궁금해하던 자기 냉장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냉장고는 ‘자기 열량 효과를 이용한 열역학적 순환 ‘과정’을 통해 열을 방출한다고 하네요. 과정 체크할 준비하면서, 이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고, 그 중 열 출입이 없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자기 냉장고의 작동 방식, 즉 ‘열역학적 순환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 지문은 친절하게도 그 과정을 스스로 끊어주고 있는데요. 과정1~4까지를 통해 자기 냉장고가 돌아간다는 것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대략적인 ‘순서’의 느낌만 잡아주고, 이 과정이 ‘자기 냉장고의 작동 과정’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을 흡수/방출할 때 냉장고 어디에 접촉하는지에 대한 비교 포인트, 작용물질의 역할 등도 보너스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많더라도 쫄지 않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정보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역할이 있으니까요.

효율이 좋은 자기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온도에서 외부에서 가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큰 자기 물질을 작용물질로 사용해야 한다. 자기 냉장고에서 1회의 순환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열량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과 후의 엔트로피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엔트로피는 물질의 자기 상태가 변하는 임계온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작용물질이 상전이하는 임계온도가 냉장고의 작동 온도 근처에 있을 때 그것의 자기 냉각 효과가 크다. 최근에는 임계온도가 실온에 가까운 물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한 실온 자기 냉장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 냉장고의 효율을 좋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큰 자기 물질이 작용물질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몰라요! 그냥 그렇습니다. 작용물질이 상전이하는 임계온도가 냉장고의 작동 온도 근처에 있을 때 효과가 크고, 따라서 최근에는 임계온도가 실온에 가까운 자기 물질이 많다고 해요.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어려

을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은 자기 냉장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5. ①

- ㉠과 ㉡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일반 냉장고와 자기 냉장고의 작동 방식 부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읽어 봅시다.

① 일반 냉장고에서 작용물질의 ‘부피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나?하고 봤더니 부피 증가/감소는 ‘온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즉, 부피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니, 그 결과인 온도의 변화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작용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건 냉장고의 역할 결과 그 자체니까요.

② 일반 냉장고에서 압력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냉장고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니, 자기장의 변화 역시 온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네요. 선지에서 묻는 내용을 체크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③ 일반 냉장고에서 냉매는 온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피의 변화, 압력의 변화가 모두 ‘냉매’의 부피, 온도였네요. 또 자기 냉장고에서 작용물질은 역시 온도의 변화를 만들고 있죠? 과정 체크, 그 정보의 활용!

④ 열역학적 순환 과정은 일반 냉장고의 작동 원리에서도, 자기 냉장고의 작동 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네요. 이게 원지는 몰라도, 각 냉장고의 작동 원리와 관계된다는 건 알 수 있죠?

⑤ 일단 ‘열펌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자기 냉장고 부분에는 있습니다! ‘작용물질’이 열펌프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3번 선지에서 이 작용물질과 같은 일을 하는 냉매라는 게 있었다고 했으니 이 냉매가 열펌프 역할을 한다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물론 ‘열펌프’의 정의인 ‘내부에서 외부로 열을 퍼내는’을 통해 냉매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6. ③

-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과정을 끊어주지 않아도, 순서의 느낌이 있다면 항상 그 과정을 끊어주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① 1번 과정에서 ‘자화’가 증가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과정을 보면, ‘자기장’을 가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과정에 자화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우리는 자기장과 자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죠? 둘이 비례한다는, 우리가 미리 메모해둔 비례/증감 관계를 이용해보니 자기장을 가하면 자화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화’를 묻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알고 있는 정보(1번 과정)과 연결짓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② 2번 과정에선 작용물질이 차가워진다고 했습니다. 차가워진다는 게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인 건 알고 있죠?

③ 엔트로피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일단 3번 과정에서는 엔트로피와 관련된 말이 없네요. 그래서 엔트로피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니, 우리가 온도와 엔트로피가 비례한다는 관계를 메모해두었네요. 그런데 3번 과정에서는 열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 엔트로피에도 변화가 없겠네요.

뒷북 해설

자기 냉장고의 작동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열 출입이 없는 두 과정과 자기장이 일정한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열 출입이 없으면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는 말이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걸 기억하셔서 푸셨다면 그걸로도 좋은 풀이일 겁니다. 저에겐 이 풀이가 뒷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제 풀이가 뒷북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엔트로피’를 묻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④ 냉장고 내부와 접촉? 이건 내부/외부로 나누어서 뭔가 차이점을 보이던 부분이었죠? 이걸 인식했다면 ‘내부와 접촉’이 ‘열 흡수’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4번 과정을 보니 열을 흡수하고 있네요. 그럼 내부와 접촉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⑤ 이 과정들 속에서 자기장의 변화 폭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거겠죠. 5번 문제의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정보니까요. 온도 변화가 심하다면 작용물질이 방출하는 열량도 많다는 뜻이겠네요.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구요.

7. ③

- ‘자기 냉장고에 사용될 작용물질’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효율적인 자기 냉장고와 관련된 내용인가봐요. 이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자기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큰 자기 물질’이 작용물질의 첫 번째 조건이고, 임계온도는 실온에 가까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생각하면서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일단 임계온도가... 실온이라기엔 너무 춥죠? 2.75라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위해 필요한 자기장도 너무 많구요.

② 임계온도는 좀 애매한데... 1이라는 자기장 변화에 대해 1.52라는 엔트로피 변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해두고 갑시다.

③ 임계온도 적절하고, 1이라는 자기장 변화에 무려 2.61이라는 엔트로피가 변하고 있네요. 가장 답처럼 보입니다.

④ 임계온도 적절한데, 자기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C보다 못하죠? 답이 되기는 힘드네요.

⑤ 임계온도... 좀 너무 덥죠? 자기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도 그리 높지 않구요.

이를 종합하면, 임계온도가 실온에 가까우면서 자기장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량이 높은 C가 자기 냉장고의 작용 물질로 가장 적절하겠네요.

FAQ

Q : 실온을 지문이나 <보기>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or 실온이라는 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실온에 가까울 것이라는 걸 아나요?

A : 일단 실온은 기본적인 어휘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대략 20℃ 내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실험실 온도라는 뜻이에요. 또한 리트 시험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다른 조건이 없다면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사정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라는 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능에서도 충분히 적용될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수능이었다면 실온에 각주를 달아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명제로 표현되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은 **완전 자본 시장 가정**, 곧 자본 시장에 불완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마찰 요인이 전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 자본 구조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이 없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모든 기업이 완전히 동일한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 내부 여유 자금이나 주식 같은 자기 자본을 활용하든지 부채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든지 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론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대 자본 구조 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는 ‘완전 자본 시장’이라는 걸 가정하는 이론인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네요. 세금도 없고 거래 비용도 없고 기업의 위험도 같은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말이죠!

이건 딱 봐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론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기보단 현대 자본 구조 이론의 **출발점**을 제시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이 ‘출발점’이 되었다면, 분명 그 뒤 이어지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 지문의 화제는 자연스레 ‘자본 구조 이론의 발전 과정’이 되겠네요. 이 생각이 사후적인 생각이 아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생각처럼 느껴지면 좋겠어요. 자본 구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시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제시된 이후, 완전 자본 시장 가정의 비현실성에 주안점을 두어 <세금, 기업의 파산에 따른 처리 비용(파산 비용), 경영자와 투자자, 채권자 같은 경제 주체들 사이의 정보량의 차이(정보 비대칭) 등을 감안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들** 중에는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 있다.

이렇게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가진 비현실성에 주목한 자본 구조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자본 구조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핵심이 되는 변화 양상은 ‘완전 자본 시장 → 불완전 자본 시장’입니다! 이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까요?

상충 이론이란 부채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편익**으로는 법인세 감세 효과만을, **비용**으로는 파산 비용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이론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법인세 감세 효과**란 부채에 대한 이자가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써 얻게 되는 세금 이득을 가리킨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상충 이론은 <부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감세 효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반면, 기대 파산 비용도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본다.> 이 상반된 효과를 계산하여 기업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부채 비율 곧 **최적 부채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 부채 사용 ↑ → 법인세 감세 효과 → 기업 가치 ↑

→ 부채 사용 ↑ → 기대 파산 비용 ↑ → 기업 가치 ↓

먼저 **상충 이론**입니다. 부채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읽어 봅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편익은 ‘법인세 감세 효과’, 비용은 ‘파산 비용’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요. 법인세 감세 효과는 저런 건데... 어렵다 그죠? 어쨌든 이게 ‘법인세 감세 효과’의 정의다. 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이론을 설명하는 비례/증감 관계도 하나 등장합니다. 부채의 사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이런 상반된 효과(기업 가치 상승or하락)를 계산하여 ‘**최적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채 비율’을 ‘자본 구조’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거의 뭐 수능 100점짜리라고 할 수 있구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더라도, 이 이론은 이런 식으로 ‘불완전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 구조’를 설명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작은 순서에 따라 자본 조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가 필요할 경우 내부 여유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며, 그 자금이 투자액에 미달될 경우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에도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주식의 발행보다 부채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본 조달 순서 이론**입니다. 애는 ‘정보 비대칭’이 핵심이네요. 기업들은 내부 여유 자금 → 외부 자금 (부채 사용 → 주식 발행)의 순서대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걸 ‘아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부터 사용한다는 것이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베스트겠고, 그게 어렵다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을 고려하는 게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구나.’라는 식으로 팩트는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 자본 시장 속에서의 자본 구조 이론, 그 중에서도 ‘**상충 이론**’을 지 나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들의 부채 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론적 예측을 제공한다. 기업 규모와 관련하여 상충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기업은 소규모 기업에 비해 사업 다각화의 정도가 높아 파산할 위험이 낮으므로 기대 파산 비용도 낮아서 부채 수용 능력이 높은데다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부채를 차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업 규모가 클 경우 기업 회계가 투명해지는 등 투자자들에게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금융 중개 기관을 이용하여 자본을 조달하기보다는 주식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하여, 상충 이론은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는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성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두 가지 이론은 ‘부채 비율 결정’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을 보면, 두 이론이 ‘기업의 규모’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비교/대조되고 있네요. 이 내용을 외워주면 굿이겠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기준에서 나뉘고 있고, 차이점이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부채 비율!’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자본 구조 이론들이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밀러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본 구조의 설명에 있어 파산 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감세 효과가 기업의 자본 구조 결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본 구조 결정에 세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현실에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소득세는 채권자의 자산 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밀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수요 행태와 기업들의 공급 행태를 정형화하여 경제 전체의 최적 자본 구조 결정 이론을 제시하였다. 밀러의 이론에 의하면, 경제 전체의 자본 구조가 최적일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이자 소득세율이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 자본의 사용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 결국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는 이론들이 있고, 이에 대해 밀러는 자신의 의견을 보완합니다. 밀러라는 사람의 주장을 꼭 체크해보니, 파산 비용 고려할 필요 없고, 법인세 감세 효과도 자본 구조 결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서 말했던 건 다 의미없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든 이론이 '최적 자본 구조 결정 이론'인데, 여기에 따르면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도 없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관련이 없다!'라는, 다소 허무한 결론이 나네요.

어찌됐든 이 지문은 '자본 구조 이론의 발전 과정'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있었고, 애는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의 원래 주장인 '자본 구조&기업 가치 무관'에 대한 도전과 재반박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 흐름과 함께 각 이론들에 대한 비교/대조만 신경쓰셨다면 그리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완전 시장-불완전 시장'이라는 비교 포인트와 불완전 시장 속에서도 '상충-자본 조달 순서'라는 비교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의 비교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양자역학&LP'와 관련된 지문과 비슷하네요. (고전-양자, 거시-미시)

8. ④

①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자마자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 떠오르죠? 정보 비대칭은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서는 이 정보 비대칭만을 가지고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논할 수 없다'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② 자본 구조 이론? 이 지문의 화제네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이론이 자본 구조 이론인데, 부채 비율과 같은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핵심이죠? 심지어 밀러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본 구조에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가치에 자본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③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을 묻고 있네요. 돌아가 보면 되겠죠 뭐. '내부 여유

자금 → 외부 자금 (부채 사용 → 주식 발행)'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이 순서로 한다고 했죠?

④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 '기업 규모'에 대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론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둘이 여기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건 기억납니다. 그럼 애가 정답이네요. 뭔가가 대비되는 것 같을 때는, 반드시 인식을 하자! 이 문제의 교훈이네요.

⑤ 모딜리아니-밀러 이론이 가진 이론적 전제, '완전 시장 가정'은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 가진 이론적 전제, '불완전 시장 가정'과 차이점을 보이죠? 이 비교의 포인트를 잡았다면 역시 쉽게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9. ⑤

- 밀러의 주장의 '변화 양상'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미리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초반부에 나온 '출발점'을 보고 변화 양상에 주목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 마지막 문단에서 결국 밀러의 주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했으니까요! ①, ②, ④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파산 비용 반영', '최적 자본 구조 분석', '기업 가치에 타인 자본의 영향' 등은 모두 밀러의 변화 양상이 아니죠? 밀러 주장의 변화 양상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는 무관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니까요. ③번에서 이야기하는 '법인세 고려'는 애초에 완전 자본 시장이라는 밀러의 기본 가정에서 벗어나구요.

이에 '자본 구조&기업 가치 무관 재확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흐르거나, 변하는 게 있다면 도대체 그 변화 양상이 무엇인지! 이걸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10. ③

- <보기>부터 분석해 봅시다. '상충 이론'에 따라 재무구조를 평가하려 하고 있고, B 기업은 타인 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 규모는 작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타인 자본', 즉 부채 비율과 기업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이를 통해 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갈 수도 있겠죠? 3문단에 나온 비례/증감 관계를 이용하면, 상충 이론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 감세 효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기대 파산 비용도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 기업은 분명 기업의 규모가 작고 성장이 높다고 했습니다.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의 차이점에 따르면, B 기업의 부채 비율은 낮아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B 기업은 지금 최적 부채 비율을 벗어난 상태네요. 여기까지 봐주면 장난 아니겠죠? 핵심은 <보기> 정리! <보기> 정리를 통해 얻은 정보들이에요.

① 부채 비율 낮다고 하겠죠! 이미 우리가 정리해둔 정보에서 답이 나오고 있죠?

② 상충 이론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법인세 감세 효과가 크다는 비례/증감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걸 지문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보기> 정리를 하면서도 한번 더 확인했어요.

③ 이러한 부채 비율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게 이 지문에 나온 '자본 구조 이론'들의 정의죠? 당연히 맞는 선지네요.

뒷북 해설

이 선지는 이 지문의 화제인 ‘자본 구조 이론’의 정의를 묻는 선지라는 점, 8번의 2번 선지에서 확인한 ‘자본 구조 이론’의 정의가 또 쓰이고 있다는, ‘문제의 연계성’이 발휘된 선지이기도 합니다. 8번의 2번 선지를 괜히 물어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뒷북이니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④ 기대 파산 비용 높아진다니까요! <보기> 정리를 미리 해두면 이렇게 편합니다.

⑤ 상충 이론에 의하면 B 기업 같은 작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남의 돈으로 투자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 선지는 틀린 선지네요.

여기 나오는 경제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모르는 어휘가 있었다면 모두 챙겨보면서 마무리합시다!

[11~13] -2012LEET ☆☆

‘멜로드라마’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통속적 이야기를 화려한 볼거리와 음악을 통해 보여 주는 대중 연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멜로드라마에서는 대개 사악한 봉건 귀족에게 뺨박받는 선하되 약한 부르주아의 이야기가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채 다만 비약이나 우연 같은 의외성에 기대어 부르주아의 덕행과 순결함이 어떻게든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멜로드라마에 대한 지문입니다. 18세기라는 시대에 시작된 것인데 ‘초기’에는 봉건 귀족<->부르주아의 이야기를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모순을 적극적으로 타개하지는 못하지만 의외성에 기대어 어떻게든 부르주아가 이기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요. 이걸 기억하지는 못해도 ‘초기’ 멜로드라마의 정의라는 점, 그리고 ‘초기’라면 분명히 후기도 있을 것 이므로 바뀌는 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잡아주면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수능에서 특히 이런 ‘시간순 서술’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므로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멜로드라마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려 갑시다.

19세기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멜로드라마의 인물 구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봉건 귀족의 자리는 악하되 강한 인물이 대신하고 그에 의해 고통 받는 선량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멜로드라마에서는 가족의 위기, 불가능한 사랑, 방해받는 모성, 불가피한 이별 등으로 주인공이 고통을 겪다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다루어졌고, 선악 대립보다는 파토스(pathos)의 조성이 부각되었다. 곧 약자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과장되게 보여 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약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파토스의 과잉은 그 나름의 의의를 지녔다고 할 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멜로드라마는 19세기 ‘변화’를 겪습니다. 자연스레 이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 주셔야 해요! 인물 구도의 변화, 약자의 고통을 강조하는 ‘파토스’ 조성의 중시 등등이 그 변화네요. 뭐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했다!

20세기에 들어서 멜로드라마는 영화로 중심을 옮겨 갔다. 영화는 클로즈업을 통해 관객들이 인물에 감정 이입을 하게 하기 쉬웠고, 통속성과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기에도 적절했으며, 음악을 통해 과잉된 정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멜로드라마 영화는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로부터가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따른 억압적 상황에서 고통 받는 약자, 특히 여성들로부터 파토스를 이끌어 냈다. 이들은 가부장제나 계층적인 차이로 고통 받으면서도 허락되지 않은 삶의 지평을 갈망하는 ‘어찌할 수 없음’의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다. 일례로 비더의 <스텔라 달라스>(1937)에는 상류 계급의 문화 장벽을 넘지 못하고 남편과 헤어져야 했던 하층민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면서도 딸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길 바라는 가운데 마음 깊이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결국 딸을 상류층의 전남편에게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희생적 모

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딸의 결혼식을 창밖에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눈물을 흘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고통 어린 만족을 선택한 모성에 공감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런 멜로드라마는 20세기부터 ‘영화’로 중심을 옮겼다는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계속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주세요. 영화는 저런 특징이 있었기에 강조되었고, 단순히 악인에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약자들의 삶을 통해 파토스를 만든다는 ‘변화’도 생겼네요. 특히 여성의 삶을 주목했고, 이를 통해 파토스를 조성한 ‘스텔라 달라스’와 같은 영화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변화 양상 체크가 전부예요.

1950년대에 할리우드는 ‘가족 멜로드라마’라는 또 다른 멜로드라마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 멜로드라마는 통속적 서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의 축도와도 같은 미국 중산층 핵가족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이 자본이나 가부장제 같은 사회 권력이 작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크의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1955)은 유복한 과부와 연하의 정원사의 사랑과 시련, 그리고 재회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결합을 반대하는 자식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애뜻한 유대의 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관리하는 제도가 된다. 따라서 자식들의 반대로 사랑을 포기했던 그녀가 거듭된 우연 끝에 병상의 정원사와 재회하게 되는 결말은 의미심장하다.

20세기 중반으로 오며 이번엔 ‘가족 멜로드라마’로 변화합니다. 이 가족 멜로드라마의 정의인 ‘통속적 서사의 틀을 유지, 핵가족에 주목’이 곧 그 변화 양상이라는 것 체크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유대의 단위가 아닌 개인의 삶을 관리하는 제도로 작용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 멜로드라마로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 양상이었습니다.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 ‘변화 양상’이라는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면서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좋은 지문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세요. 똑같은 구조에 경제, 과학과 같은 제재만 입히면 고난도 지문으로 탈바꿈하니까요.

가족 멜로드라마로서 이 영화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어온 멜로드라마의 주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멜로드라마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순에 눈감은 채 주인공의 성공에 안도하는 기존의 ‘행복한 결말’과는 구별되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크는 여전히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결말에 관객들이 주목하게 하여,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만들어진 현실’이며 행복한 결말은 인위적인 허구 안에 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했다. 고도로 표현적인 미장센(장면화)을 통해 여주인공이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중산층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으로 인한 억압과 소외의 상황임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 영화는 ‘또 다른 가능성’, 즉 또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요. 이 영화가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 행복은 인위적인 허구 안에서만 가능, 억압과 소외의 상황 같은 말 그대로 행복하지 않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 생각해주면서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완벽하게 머릿속에 담아두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멜로드라마는 ‘부적절한 리얼리즘’이니 ‘여성용 최루물’이니 하는 등의 비하하는 말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서크의 영화에서처럼 멜로드라마는 사회적 약자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전달하는 서사이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아이러니한 반응으로도 읽힐 수 있다. 현실에 종속되더라도 그 현실을 넘어서려는 절박한 요구는 영화라는 재현 체계 속에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멜로드라마를 생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멜로드라마는 저렇게 비하를 당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슬픔, 사회적 모순에 대한 반응 등을 담는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초기 멜로드라마’에서 ‘서크의 가족 멜로드라마’까지 이어지는 변화 양상을 잘 체크했다면 그리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문제 풀어 봅시다.

11. ②

① 초기 멜로드라마에서도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 그 정의였고, 그 뒤 우리가 체크한 수많은 변화 양상 속에도 ‘사회적 모순 극복’은 없었죠? 오히려 단순한 슬픔의 표현 등은 있었는데 말이죠.

FAQ
Q : 마지막 서크의 가족 멜로드라마 등에서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왜 틀린 건가요?
A : 단순히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려 하는 것은 다르죠? 서크는 ‘이런 모순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극복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예요.

② 역시 우리가 체크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현실 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통속성을 잘 드러내고자 영화로도 찍었고, 계속해서 ‘파토스’, ‘행복한 결말’ 등의 정서 표출 위주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확실한 근거를 잡기보다도 전반적인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선지였어요.

③ 점점 제도화된 가족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사회적 모순을 강조하는 모습 등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까지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④ 초기에도 그랬고,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에서도 거듭된 ‘우연’ 끝에 정원사와 재회하는 모습 등에서 작위적인 서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⑤ 선악 대립 -> 파토스 강조. 중요한 변화 양상 중 하나였죠?

12. ⑤

① ㉠과 ㉡ 모두 기본적으로 영화입니다. 영화의 정의를 보면 ‘음악을 통해 과잉된 정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했네요. 맞는 선지입니다.

② ㉠에서는 파토스가 제대로 발휘되어 여성 인물에게 관객들이 엄청나게 공감을 하지만, ㉡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해피엔딩’, ‘인위적인 허구 강조’ 등을 통해 이 영화의 내용이 허구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럼 여성 인물에게 관객들이 몰입하는 정도가 조금은 떨어지겠네요.

③ 2번 선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에서는 파토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목표였다면 ㉡에서는 인위적인 허구, 사회적 모순 강조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④ 멜로드라마가 아무리 바뀌어도, 주인공이 약자라는 건 변하지 않죠?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⑤ 중산층 가족의 가치 회복? 이건 지문의 내용과 상관이 없죠? 이 지문은 약자의 슬픔을 통한 파토스를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멜로드라마의 변화 양상이라고만 했어요. 가치 회복 같은 건 변화 양상으로 등장한 적이 없죠.

13. ③

- 문제에서 묻는 걸 정확하게 잡고 갑시다. ㉠에 주목해서 감상하라고 해요. 현실에 '종속'되면서도 그 현실을 '넘어서려는' 절박한 요구. 종속되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려고도 하는 두 모습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문이 특이한 문제인 경우 그 문제가 묻는 것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합니다.

① 현실에 종속되는 것도, 넘어서려는 태도도 없네요. 그냥 당대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니까요.

② 역시 현실에 종속되기도,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넓게 봐서 누명을 벗겨준다는 걸 현실 극복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현실에 종속되는 모습은 없으니까요.

③ 가정주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에서 가부장제라는 현실에 종속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네요. 또한 선지에서 춤바람이 난 것이 그 현실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했으니 이걸 현실 극복의 태도로 볼 수도 있겠구요.

④ 현실에 종속되는 건 충분히 그럴 듯 한데, 이를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고 있네요.

⑤ 역시 현실에 종속되는 모습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네요.

FAQ

Q : 아니 아까는 분명히 사회적 모순 극복 안한다면서요!

A :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과 현실을 넘어서려 한다는 건 또 다른 말이죠. 사회적 모순을 극복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뭔가 바꾸려는 행동을 한다는 건데, 현실을 넘어서려는 절박한 요구는 이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 오션영처럼 반항(?) 정도만으로도 성립하니까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